

오픈뱅킹의 이론적 측면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과제

2019.4.15.

박선영



오픈뱅킹과 필수설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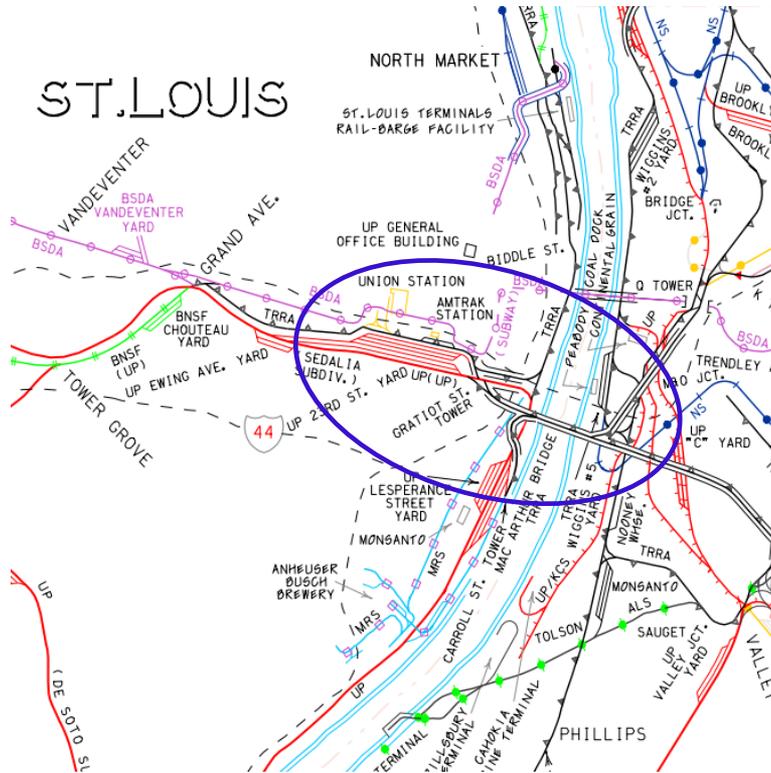
○ 필수설비

- ▶ 그에 대한 접근(access)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관련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
- ▶ 필수설비의 보유자는 경쟁업체의 공정한 접근,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설비원리**
- ▶ Those who control an essential facility must grant **access** to it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o **all competitors** (Comments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mendment of Regulation J, 1974)

○ 한 국가의 지급결제망은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니며, 국내 지급결제망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중심의 **독점/공익기업형** 모델로 구축

- ▶ 금융공동망을 이용한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시장**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필수설비임
- ▶ **오픈뱅킹**은 **필수설비**인 금융공동망을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정한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임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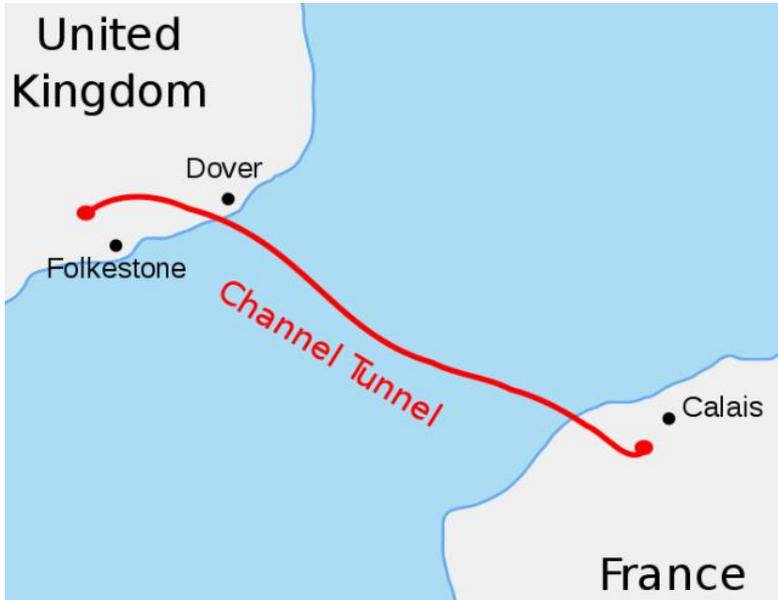


○ U.S Government vs.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 (1912)

- 1889년 St. Louis 지역의 14개 독립철도회사가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TRA)을 결성하여 비가입철도회사의 미시시피강의 철교와 Union Station의 사용을 불허하여 사실 상 St.Louis 지역 내 화물 및 여객 운송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 미국법원이 1912년 철교와 Union Station은 필수설비에 해당하므로 TRA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필수설비이론은 확립된 판례법으로 네트워크 중요성이 큰 철도, 에너지운송망, 통신망, 결제망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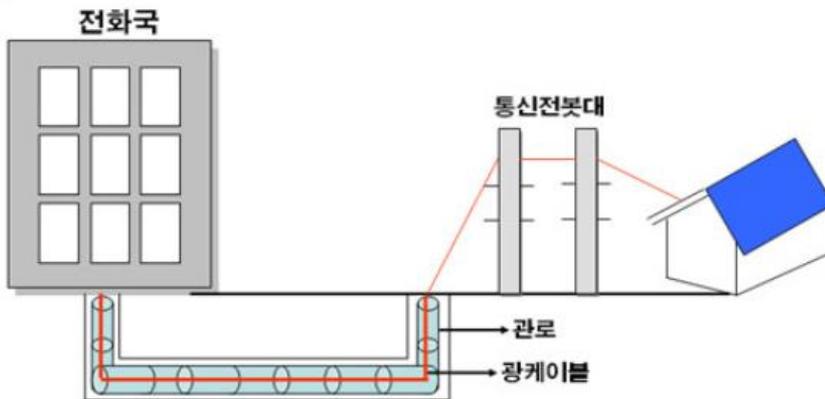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



○ ENS v. EC(1998)

- › 유럽의 다수의 철도사업자들이 European Night Service(ENS)라는 Joint Venture를 통해 채널터널을 통과하는 서비스를 계획할 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는 ENS회원들이 비회원 사업자들에게도 회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용인



- KT가 보유하고 있는 전주(전봇대, 93.8%), 광케이블(53.9%), 관로(72.5%) 등 전자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필수설비로 간주하고 있음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

○ US v. Rocky Mountain Automated Clearing House (1977)

- › 1970년대 연방준비은행과 민간상업은행의 합작투자자로 Automated Clearing House(ACH)가 구축되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무상으로 운영하며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 이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인식
- › 서민금융기관(Thrift: Savings bank, S&L association, Credit Union)은 ACH의 직접참가기관인 은행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Pass-through) 지급결제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 이에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
- › 법원은 지역 ACH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통해 '필수설비원리'를 근거로 서민금융기관이 은행과 동등한 조건으로 ACH에 참가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

○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예금수취기관의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 1980)의 제정으로 해결

- › 의회가 은행과 서민금융기관간의 형평성, 연방준비제도 회원체제의 유지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화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사건의 최종해결이 이루어짐

(한국은행,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현황, 2008)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y Doct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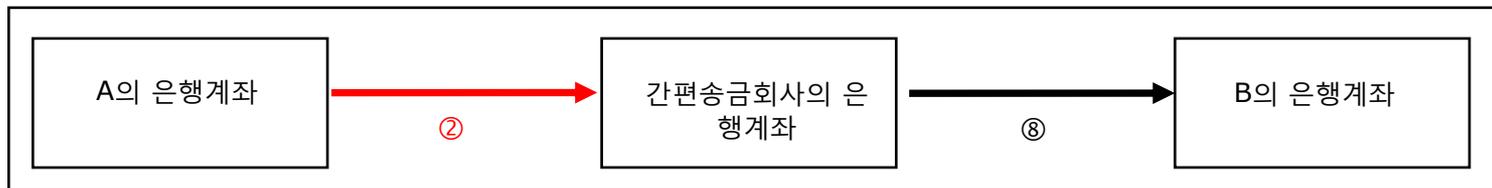
-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access)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
 - › 필수(essential)란 어느 정도의 유일성(uniqueness) 또는 시장지배(market control)의 의미를 포함하며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재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 설비(facility)란 물리적 구조물 또는 대규모의 자본재(capital asset)를 의미하며, 특히 일정한 비용상의 이점이 있거나 유일성이 있어서 독점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야기하는 대상물을 의미
- 필수설비원리란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동등한 혹은 합리적인 접근(equal access in price and quality)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특히, 자연독점상태의 단일설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점력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재(public utility)의 맥락에서 다음 사항을 포괄하여 규제
 - › 필수설비 보유자에게 접속을 의무화
 - › 접속의 요금, 기간 조건 등을 규제
 - › (필요한 경우) 접속이 가능(feasible)하도록 설비증설 의무를 부과

지급결제부문의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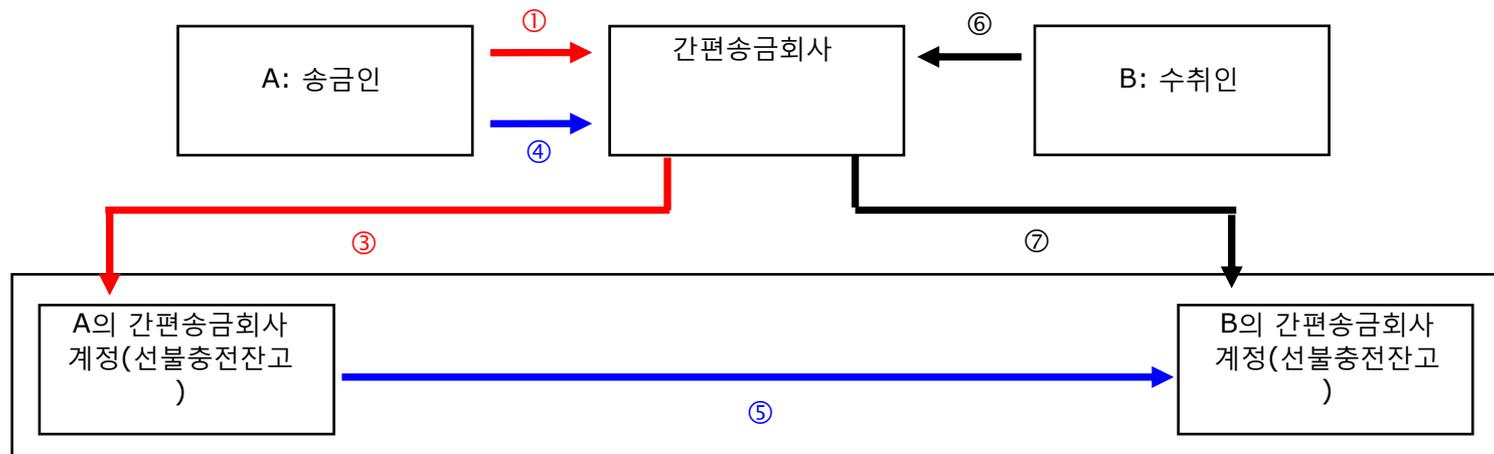
-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른 편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주도하에 구축, 운영되어 온 '독점/공익기업형 모델'을 추구
- '독점/공익기업형' 경쟁구도 하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쟁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적 개입이 요구됨
 - ▶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참가 보장 등 시스템에의 접근성(access)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이용방식 및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방식 등 각종 정책목표를 포괄적으로 반영
- '독점/공익기업형' 모델은 규모의 경제, 소비자의 편의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한 발전과 혁신이라는 일반적 시장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 반독점정책의 거시적효과 (Areeda, 1989): 단기적·정태적 차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경쟁정책적 결정이 장기적·동태적으로는 혁신 및 경쟁유인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

간편송금회사의 송금구조와 필수설비

은행



간편송금회사



- 1 - 충전지시
- 2 - 충전대금 출금
- 3 - 충전금에 상당하는 잔고 증액 처리
- 4 - 양도지시

- 5 - 양도금에 상응하는 A의 잔고 차감, B의 잔고 증액 처리
- 6 - 환급지시
- 7 - 환급액에 상당하는 잔고 감액 처리
- 8 - 환급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

간편송금업체의 계좌연결 제휴 현황

은행계좌 연결

취소

1 ... 2

계좌 선택

연결할 계좌를 선택/입력하세요.

은행 선택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케이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계좌연결

박선영 010-9534-5567

카카오뱅크, 농협, 신한, IBK기업
우리, 국민,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새마을,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우체국
신협, 수협, 메리츠, 유진투자
유안타, NH투자, KEB하나, 요청

은행 선택

NH농협,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외환
IBK기업,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새마을,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신한
SC제일, KDB산업, 대구
제주, 우체국, 수협

증권사 선택

키움, 미래에셋대우, 삼성
NH투자, 대신,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진투자, 한국투자

토스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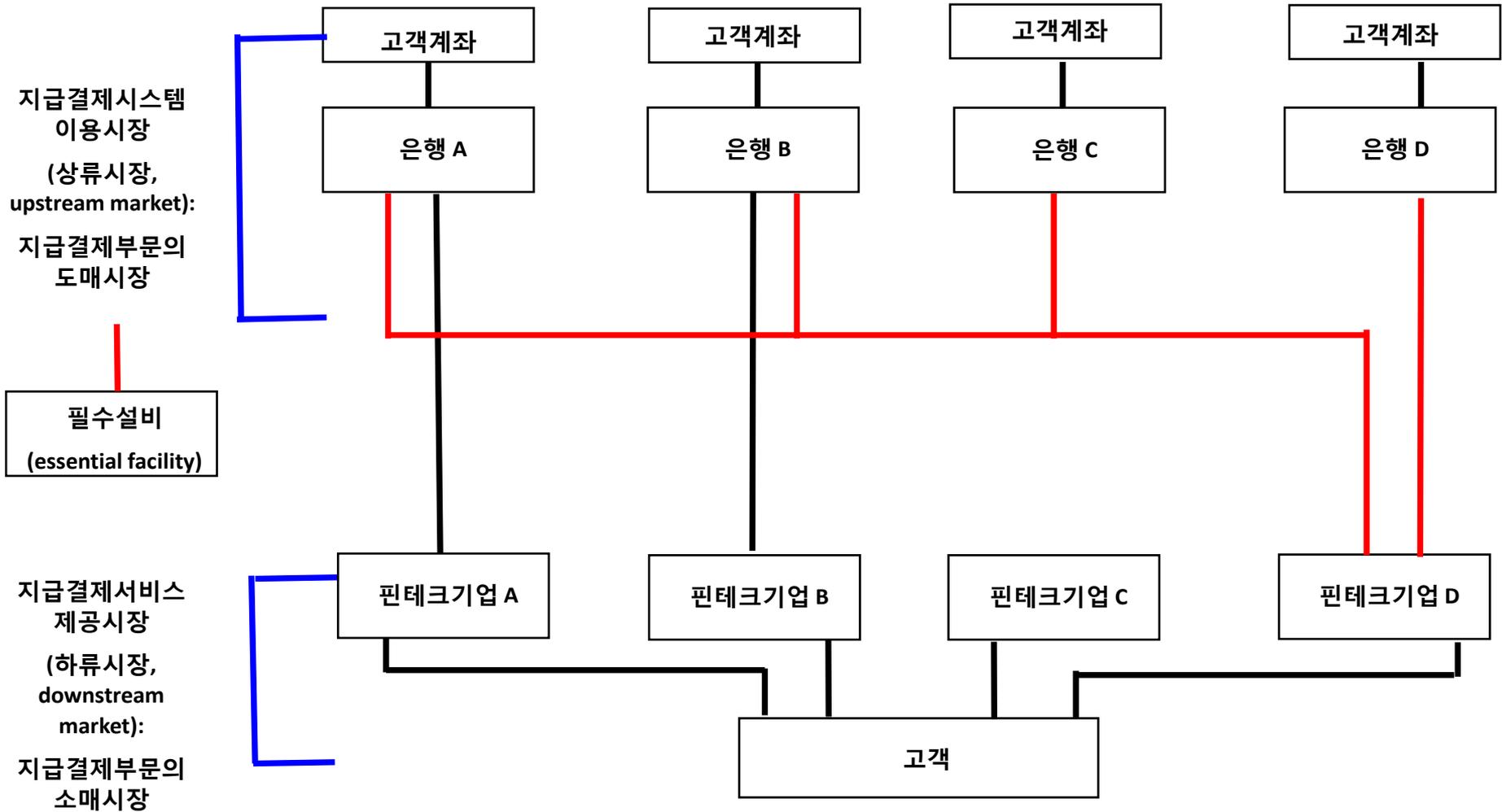
공동계좌, 비상금 계좌

핀크의 연결가능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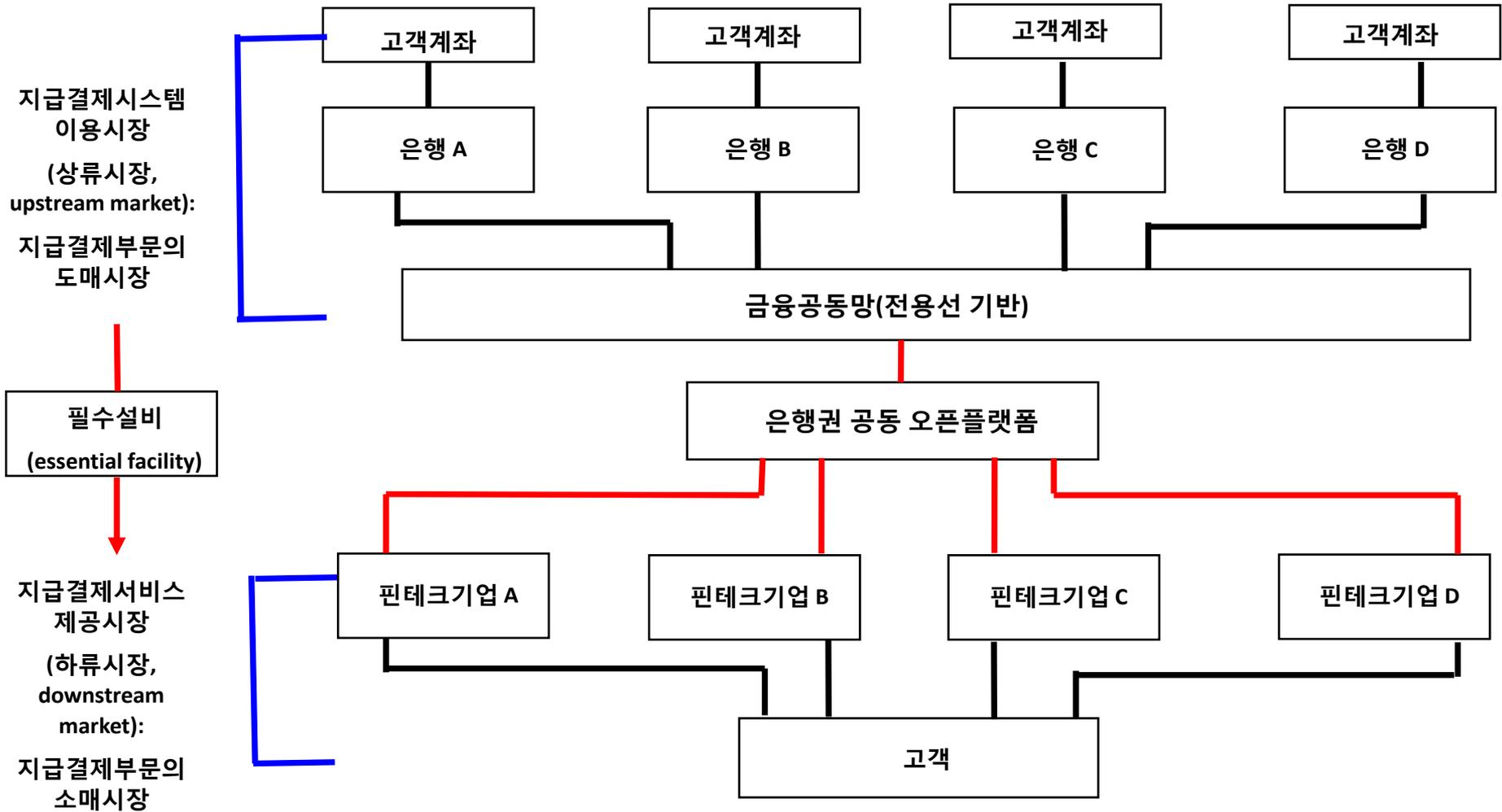
카카오페이의 연결가능 기관

Toss의 연결가능 기관

오픈뱅킹의 구조와 필수설비



오픈뱅킹의 구조와 필수설비



오픈뱅킹과 핀테크산업의 혁신



-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사용자경험은 글로벌 핀테크기업과 견주어보아도 뛰어남
- 유럽과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자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여러 Neobank들이 등장/경쟁하며 사회 전체 후생 증가에 기여
- 오픈뱅킹정책은 핀테크기업들에게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하는 산업혁신의 필요조건임

